



“임진년, 승천하세요” 임진년 용띠해를 맞아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흥흥어린이집 원생들이 가로·세로 8m 크기의 도화지에 색색의 크레파스로 대형 용을 그린 후 인세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활주로·부지 다 갖춘 고흥 탈락 사업비 8배 더 필요한 고성 선정

### 국토해양부 경·수상비행장 후보지 발표 반발

정부의 항공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수상비행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이 모호한데다 후보지간 비교 분석 과정에서 소외되는 예산 규모와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선정절차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경비행장과 수상비행장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후보지를 선정, 발표했다.

육상 경비행장이 들어설 후보지로 1순위는 전북 김제, 2순위로 경남 고성이 선정됐고 수상비행장의 경우 충

북 제천이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육상 비행장의 경우 고흥군 풍양·도덕·두원면 일대 고흥만을 후보지로 제출하고, 수상비행장 후보지로 영암호·영산호와 여수시 소호동(송소) 일대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의 구체성 ▲환경문제 ▲사업 효과 ▲기술적 검토 및 개발 여건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정된 후보지를 들여다 보면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육상비행장 후보지 중 2순위로 선정된 경남 고성의 경우 고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20만8500㎡)를 사들인 뒤 활주로(길이 1.2km·폭 30m)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국비 등 397억원에 달한다.

반면, 고흥의 경우 이미 활주로(길이 700m·폭 24m)를 갖추고 부지(10만㎡)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인근 고흥항공우주센터엔 비행선시험동·소형무인기시험동·헬기시험동 등의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놓고 있다. 사업비도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고성 후보지는 2개의 산봉우리(243만㎡)를 깎아내야 해 환경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도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국토부에 부지 선정과정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들어 항의하는 한편,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선거인단 모집 전쟁... ‘동원선거’ 우려

### 민주통합당 완전국민경선 공천 대비 현역의원·단체장까지 나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의 ‘참여’가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동원선거’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3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최되는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지난 2일 현재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자동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당비당원 12만명과 대의원 2만5000명을 더하면 선거인단 규모는 37만명을 넘어설게 된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인 오는 7월에는 50만~60만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인 25만~30만명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이처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동원’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의 내년 총선 공천 원칙이 ‘완전국민경선제’로 가닥 지어지면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예비주자들의 조직 점검 및 확대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지역구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시민 참여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지층을 최대한 확보,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예비 후보들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선거인단에 지역구 지지층을 최대한 참여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당권 주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리한 공천 환경 조성을 나서고 있다.

실제로 광주 국회의원들은 적게는 1만명, 많게는 2만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 핵심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2만명의 선거인단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만5000여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국회의원들은 5000~1만명 규모의 선거인단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조직력이 취약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들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층 확대를

위해 선거인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단체장들도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선거인단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순수한 ‘참여’보다는 ‘동원’에 방점이 찍힌 선거인단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선거인단 가입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각종 지역 단체들도 회원들을 선거인단에 참여시켜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동원’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오히려 왜곡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동원 선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달 잦은 한파 서해안 많은 눈

광주·전남 지역은 이달 말까지 잦은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1월 중순~2월 상순) 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이달 중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이 많으며 기온은 평년(1~3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평년(9~13mm)보다 많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민기자 kki@

## 알림

### 제57회 전국대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발표 12편

2012년 4월 25일~6월 30일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자리 잡은 제57회 호남예술제가 2012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제57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격: 국내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 경연기간: 2012년 4월 25일(수)~6월 30일(토)
- 부 분: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신청기간: 4월 5일(목)~4월 18일(수) -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 자세한 일정은 2012년 3월 초에 발표 (http://art.kjmedia.co.kr 참조, 문의 062-220-0541)
- 시상
  - 우수학교 / 우수지도교사 시상
  - 개인·단체: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합주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최고상, 대상: 소정의 장학금 지급

주최 | 광주일보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http://www.hankooktea.co.kr

# 한국제다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종류 유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친환경다원  
작살차  
고품질 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